



가을철 여성 탈모 예방과 치료

더모헤어플란트 정진욱 원장

노화·스트레스가 주범...예방이 최선책



탈모증이라고 하면 의당 청년 남성이 떠오른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탈모증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은 여성들의 탈모가 드물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남성들은 짧은 모발 스타일로 인해 탈모가 발생하면 쉽게 인지가 가능하지만 여성들은 긴 머

리, 핀과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탈모부위를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 위상의 상승이나 사회활동의 증가는 이런 탈모증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했으며, 요즘 탈모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진욱 더모헤어플란트 원장이 뿔머리가 가늘어지는 등 탈모증세를 보이는 여성을 진찰하고 있다.

◇탈모증과 원형탈모증=머리카락은 손바닥이나 발바닥, 점막을 제외한 우리 몸의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3~5년 정도 자라다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7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70개의 머리카락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의 머리카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빠지는 머리카락이 늘어나 새로 올라오는 머리카락보다 많으면 머리카락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모발의 수가 줄면 탈모증이고 한다. 또한 모발의 질적인 변화 즉 모발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증이다.

원형탈모증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탈모증이다. 자기 면역세포가 어떤 이유로 인해 자기의 모낭 주위에 염증을 유발해 탈모증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둥근 모양의 탈모증이 한 개 또는 두세 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탈모된 부위는 피부가 대리석처럼 매끈하게 보인다.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심한 경우는 전체 두피를 침범해 전두 탈모증으로 나타나며 드물지만 몸의 체모도 다 빠지는 완전탈모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초기에 치료에 들어가는 효과적이다.

원형 탈모증의 치료는 연고제제나 약물의 복용 그리고 탈모부위에 주사를 2~4주에 한번 맞는 치료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탈모증의 상태에 따라서 냉동치료나 자외선 치료 면역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여성 탈모증의 특징과 치료=여성들에 있어서 가장 흔한 탈모증은 여성형 탈모증이다. 남성형 탈모증과 유사한 탈모증으로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며, 뿔머리나 가운데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가족력이 있고 성호르

단백질·비타민 탈모 예방 효과 지나친 술·담배는 탈모 지름길

몬과 노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탈모 초기에는 미녹시딜, 엘크라넬, 모발 영양제 등 약물만으로 치료한다. 그러나 약물치료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저출력 광선 레이저, 메조세라피, 헤어샬, 성장인자주사, 두피스케일링 등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메조세라피'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물과 모낭의 성장을 도와주는 약물을 잘 배합해 모낭 주위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법이다. 주사시 아주 가는 미세침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증은 심하지 않으며, 탈

모 부위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해서 모발의 성장 촉진과 퇴행을 늦추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피부의 어느 층에 주사하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시술 결과가 달라진다. 주로 탈모 초·중기 환자의 치료법이지만 진행된 환자에게 보조적 치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헤어샬 치료'는 두피에 자기장을 쬐어, 모낭세포를 활성화시켜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모낭 주위의 혈류를 증가시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1주일에 한번 약 12분 동안 전자기장을 두피에 쬐어주는

방식으로, 시술 시 마취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이다. 임상시험 결과 탈모치료 효과는 97.6%로 매우 높으며, 증효율은 66.1%를 기록해 차세대 탈모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시술 후 6주가 지나면 탈모되는 머리카락 수가 줄어들고 모발 가늘어짐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5주 후에는 발모가 촉진된다. 헤어샬 치료는 탈모 전체 단계에 효과가 있으며, 항암 치료에 의한 탈모증에도 효과가 있다.

탈모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 단백질·비타민·미네랄 등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하고 음약 감상, 독서, 운동,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탈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선정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이 최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선대병원은 최근 병원 하중현홀에서 국립목포검역소와 협약식을 갖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선정돼 해외방문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사진>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은 여행자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황열 발생국을 방문할 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황열 예방접종이 기록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기존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이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와 3개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제공항과 항만에 위치

해 민원인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에 불편함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백신 안전관리, 전문성(감염내과)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조선대병원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선정됨에 따라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경래 병원장은 "이번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 지정과 국립목포검역소와 협약 체결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게 됐다"며 "감염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은 물론 교육, 상담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감염질환 예방 선도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장암의 날' 9월 무료강좌·캠페인 다양

화순전남대병원·전남지역암센터 잇단 강연

9월 '대장암의 날'을 맞아 화순전남대학 교병원(원장 조용범)과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석모)가 예방 캠페인과 무료강좌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진>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튼튼한 대장, 행복한 삶,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대한장연구학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강좌에는 100여명의 고객과 지역주민들이 참석, 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들이 들려주는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옥천영 교수는 대장암의 증가 현황과

원인, 명대성 교수는 대장암 진단방법, 정조운 교수는 대장암의 위험인자와 예방, 박형철 교수는 대장암의 치료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남지역암센터도 '대장암의 날'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내 1동 1층 로비에서 '골드리본 캠페인'을 갖는다. 이날 오후 3시에는 5동 1층 강당에서 주재균(대장항문외과) 교수의 '대장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7층 상가 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매가 **14억 5천** (보 2억, 융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